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처럼”

7월 묵상 자료는 성규 47장에서 53장입니다. 손님 환대에 대한 53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47장~52장)은 주로 수도승 생활에 주요 구성요소인 기도, 일(노동), 성독과 관련된 규정들로 어떤 특수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각기 다른 시기와 때에 따라 하루 일과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의 매일의 삶의 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공동기도와 성독과 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실한 공동체 삶이 되도록 염려합니다.

한편 성규 53장은 손님 환대에 대한 규정으로, 세상을 향한 개방이란 큰 주제 안에서 규칙의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참고: 성규 21장부터 52장까지가 수도원 내부 공동체를 위한 규정이라면 53장부터 66장까지는 수도원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부 베네딕도는 52장까지 가르쳐 온 성규 전반부의 내용을 53장과 함께 이제 세상을 향해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는 환대의 영성은 언제나 베네딕도회의 독특한 은사며 전통으로 간주되었고 베네딕도 회원으로서의 당연한 소명으로 여기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반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대의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피정은 성규 53장을 중심으로 손님환대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고 묵상해 보려 합니다.

1. 환대란?

환대를 뜻하는 라틴어 *hospitalitas*란 말은 병원(*hospital*), 여행자 숙소(*hospice*), 혹은 호텔이라는 말들의 어원입니다. 여기서 *hospitality*- 손님 환대란 우리가 단순히 수녀원 객실과 연관지어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곧, 글자 그대로 객실 또는 손님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한정하기보다 공동체에서나 사도직 현장에서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과 고향을 떠나 피난민, 이주민, 외국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에 손님 환대, 나그네 환대는 더욱 절실한 시대적 요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베네딕도 수도자들이 환대의 시야를 더 넓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손님 환대의 원칙

베네딕도가 손님맞이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이 것이다”(성규 53,1).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주었다(마태 25, 35).” 결국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며 손님을 환대할 때 손님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네딕도는 손님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하며 이 말을 53장 전반부(1-15절)에서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53,1.7.15). 이렇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손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믿음, 결국 그리스도께서 손님 환대의 출발점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수도생활의 핵심이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현존하시지만(19,1), 특히 전례 안에(8-20장), 사람들 안에, 아빠스(2,2; 63,13)와 병들고 허약한 형제들 안에(36,1-3), 젊은이(3,3), 공동체(2,20) 안에 그리고 손님들 안에(53,1-15) 현존하십니다.

3. 환대의 대상

규칙서는 우리가 맞아야 할 손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라 표명합니다. 53장 전반부에서 ‘모든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53,1.2.6) ‘모든 이’에 대한 강조점은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개방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지위가 있건 없건, 성격이 맞건 안 맞건, 마음에 들 건 아니 건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모든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가 내가 환대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베네딕도는 손님을 받아들임에 있어 특히 우선되어야 할 대상은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들(이방인, 소외된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53,3.15). 이들을 맞아들임에 있어 더욱 각별한 염려와 사랑을 기울이라고 권고하며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15절). 사부 베네딕도의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연민의 정은 이미 규칙서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왔고(31,9; 34,2; 35,1.3; 36; 37; 39,1.11; 40,3; 64,12-14.17-19) 53장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접되시기 때문입니다”(15절).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은 도움이 더 절실한 이들이고 우리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 환대의 방법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인가? 베네딕도는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러내라고 합니다(53,1-2). 합당한 공경의 구체적 과정은 먼저 기도를 바치고(53,4.5.8) 사랑의 행위와 봉사를 하게 합니다(53,3.6.9).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도의 중요성과 우선권입니다. 53장 4절의 “우선 함께 기도를 바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눌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머리말 4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선 무슨 선행을 시작하든지 주님으로 인해 마치도록 간절한 기도로써 청할 것이니...”. 어떤 경우든 먼저 주님께 기도부터 바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53장에서 먼저 기도를 바치게 하는 이유는 “악마의 속임수 때문”(53,5)이라고 설명합니다. 손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손님을 통해 악마가 올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기도와 성경 독서에 대해 언급하는데(53,8-9) 이번에는 그 동기가 손님에게 감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환대의 목표입니다. 즉 손님을 감화시켜 그를 신앙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자세로는 사랑, 겸손, 친절의 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 세 가지 덕에 모두 ‘온갓’이란 수식어가 붙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실제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온갓 사랑과(53,3) 온갓 겸손과(53,6) 온갓 친절(53,9)로써 손님을 맞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못해 건성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을 담아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이런 자세로 오는 손님을 맞아들이려면 먼저 일상 안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상치 않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오는 손님을 ‘온갓 사랑의 친절로써’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손님은 나의 그런 행위를 통해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목상>

- 성규 53장; 마태 25,31-46; 창세 18,1-15

<숙고>

-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도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